

원격수업 증가...지역 학교폭력 감소

시·도교육청 조사...‘피해 경험’ 광주 0.9%·전남 1.1%
언어폭력·집단 따돌림 순...초등학교 발생 가장 많아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늘어났던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학교폭력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총 11만8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9만9천142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96명 (0.9%)으로, 전년도 1천895명 (1.6%)보다 0.7% 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5%), 고등학교 (0.1%)로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9%로 나타났다.

유형별 피해 비중은 언어폭력 (35.2%),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26.2%), 사이버괴롭힘 (11.5%), 신체폭행 (7.0%), 스토킹 (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졌고,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

버 괴롭힘 등 정서적 유형은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 (45.9%),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 (29.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의 경우 교실 안 (32%), 복도 (10.7%), 사이버공간 (9.3%) 순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5.4%), 하교 이후 시간 (19.2%), 점심시간 (10.6%)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 (교과·장제) 연계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계회복·자치 중심 예방교육 강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를 통한 학급·학년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한 Wee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이번 조사에 총 11만3천55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도 1.6% 대

비 0.5% 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1.8%p 감소), 중학교 0.5% (0.1%p 감소), 고등학교 0.2% (0.1%p 감소)로 나타났다.

피해응답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 (중복응답 포함)은 언어폭력 (35.8%), 집단따돌림 (23.0%), 사이버폭력 (10.6%), 신체폭력 (8.7%), 금품갈취 (6.2%), 스토킹 (5.9%), 강요 (5.6%), 성폭력 (4.3%) 순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원 연수 지원, 언어폭력 예방활동 확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지원 기반 구축 등 대책을 수립해 사전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 시스템 (공감마당)을 구축해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권범 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

해돋이 07:38 해질 17:51
달돋이 12:44 달짐 01:3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50
마스크 챙기세요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 40
내부 청소 좋아요

운동 70
실내 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광주 30-30
목포 30-30
순천 30-30
여수 30-30

지역 강수량(mm)

광주 0.5-1.0
목포 0.5-1.0
순천 0.5-1.0
여수 0.5-1.0

주간날씨

1월 23/토 ☁ (7/11) ☁ (4/9) ☁ (4/7) ☁ (5/10) ☁ (6/10) ☁ (11/14)

24/일 ☁ (4/11) ☀ (2/9) ☁ (3/6) ☁ (1/10) ☁ (4/9) ☁ (9/12)

25/월 ☀ (0/12) ☀ (-1/9) ☁ (2/8) ☀ (-3/11) ☀ (0/10) ☁ (7/13)

▶ 날씨안나 : 국민일보 131

남구, 화장실 물카 탐지기 대여

광주 남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물레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21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장소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20대를 마련,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관내 학교를 비롯해 상가와 병원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남구청 환경생태과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한 뒤 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김동수기자



신비의 약수 ‘고로쇠’ 채취 현장. 장흥을 비롯해 광양, 곡성, 구례, 화순 등 전남도내 주요 산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된 가운데 21일 오전 장흥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서 가인마을 주민들이 수액 출하를 위해 분주한 손놀림을 하고 있다. 땀에 이름다고 해 ‘골리수’로도 불리는 고로쇠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위장병과 혈당 억제,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권기자

5·18 관련 학술 연구·출판 15년간 400여건

기념재단, 기초조사...학위 83건·학술 263건·도서 60여권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연구와 출판물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5·18 학술총서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5·18 관련 학위 논문 83건, 학

술 논문 263건이 발표됐고, 도서 60여권이 출판됐다.

석·박사 학위 논문은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됐지만, 지역별로는 약 40%가 광주·전남에서 발표됐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있는 의학 분야

연구가 돋보였다.

다만 광주·전남 이외 지역은 접근성 등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학술 논문 263건 가운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73편 (28%)으로 조사됐다.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 5·18과 관련한 사실·사건과 관련된 연구였고, 20

00년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과거 청산 운동을 포함한 5월 운동과 5·18의 의미, 문화운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도서는 5·18기념재단이 기획한 ‘5월 18일, 맑음’이나 대학교재로 쓰이는 ‘너와 나의 5·18’ 등 학술 및 대중 도서가 40여권 출판됐고, 5·18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도서도 20여권 출간돼 있었다.

5·18기념재단은 향후 5·18 학술연구를 위한 후학 양성, 지역 편향을 극복하는 교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아카이브 구축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백혈병소아암 환우가정 치료비 지원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백혈병소아암 환우가정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1일 “올해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더 고통받고 있는 백혈병소아암 환우가정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환우가정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광주·전남지역 거주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 환우가정이며, 선정인원은 15명 내외다.

지원 분야는 입원 및 수술비 등의 의료적 치료비와 재활 및 발달치료 등의 치료보조비 등 2개 분야이며, 선정된 가정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매월 20~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광주전남지회 홈페이지(www.gjssoaam.or.kr)와 팩스(062-225-1094)로 하면 된다(문의 062-225-1014).

/김동수기자

오는 28·29일 광주 중·고교 신입생 배정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입생을 배정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생 배정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주관으로 28일 전산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예비 중학생들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입학 예정 중학생 수는 총 1만4천319명으로 지난해 1만5천614명보다 1천295명 (8.3%) 감소했다.

배정 중학교는 올해부터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비아중을 제외한 90개교다.

고등학교 배정은 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전산 추첨으로 발표된다.

예비 고등학생들이 지망하는 고교들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중학교와 달리 원거리 고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올해 입학 예정 고등학생 수는 1만803명으로 지난해 1만1천950명보다 1천147명 (9.6%) 감소했다.

배정 고등학교는 후기 (인문계) 고교 49개교다. 전기(특성화) 고교 19개교는 학생들을 자체 모집한다. /최권범기자

광주매일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우리 함께 실천해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주최: 광주매일신문 후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KFS 한국농어촌공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내

부과일	2020년 11월 13일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 2차 위반 300만원

※ 마스크 불인정 : 망사형, 벨트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부과대상 예외자	부과대상 예외사항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으로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마스크 쓸 땐 이렇게 하세요

모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밖으로 입과 코가 나오지 않도록 밀착해 착용해주세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에, 대화 시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CMYK